

2024 12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6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1 COVER

제7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성료

02 FOCUS

간호법 제정에 따른 간호인력과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점

03 KAMT News

2024년 16개 시도 중소병원 대표위원 워크숍 실시

제503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연구를 위한 모든 것 Total Lab Solution for you Hyunil Lab Mate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 자 황래환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제7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성료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11월 19일(화) 대한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기총 각 단체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직능위 전재진 수석 부의장,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허영 부이사장, 각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에서는 이광우 협회장, 최병호 사업부회장, 지우현 총무이사, 김선희 국제이사, 서경아 공보이사, 조미숙 사무총장,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사의 날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한정환)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 수호와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국민 건강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포상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으로 나뉘어, 직역별로 각 1명에게 수여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임용(동의대학교)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문병석(여수애양병원)이 수상했다.



이후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 책임지는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피켓 이벤트를 끝으로 종료됐다.

제8회 미래행복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1월 20일(수)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8회 미래행복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협회는 임상병리사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활동과 지역사회 의료 질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리수상을 위해 참석한 고인철 정무이사는 "최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는 만성질환 고위험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보건의료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지역사회 의료 돌봄"이라며 "대한민국 임상병리사들은 국민이 지역사회 의료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방문 현장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욱 보건의료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임상병리사들을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간호인력과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 기 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의사 외에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함께 팀을 이루어 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정에서 각 직역 간 자신의 업무에 따른 부담을 하게 되어 분업의 원칙 및 신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과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와의 관계에서 의료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가 간호법 제정 이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이 각 직역간의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 업무를 임무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종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의 보조'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아래 진료에 종사'하는 것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5년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 전에도 간호인력과 의료기사는 모두 의사의 진료행위와 연관이 있는 업무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여부와 함께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사이의 업무가 충돌되어 왔습니다. 실제 개별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비록 금번 제정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해도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의사나 의료기사의 업무까지 임상현장에서 수행할 소지를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중심의 의료를 수행하는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가 불분명하여 2023년도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사례(건수)를 보면 총 95건이 있었습니다. 직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사-한의사 8건, 의사-치과의사 12건, 의사-간호사 22건, 간호사-간호조무사 17건, 간호사-의료기사 34건, 약사-한약사 1건입니다.

유권해석 사례 총 95건 중에 34건으로 간호사-의료기사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직역 간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항 중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면 전체 갈등에 있었던 것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또한 간호사-의료기사 사례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채혈 가능여부, 간호사의 심전도 검사, 물리치료, 방사선검사장비 촬영 등 의료기사 업무수행 가능여부, 임상병리사의 정맥로 확보 가능여부, 방사선사의 시술준비 및 보조 행위 가능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업무범위관련 유권해석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직역 간 업무의 충돌이나 간호법 적용 후 의사고발 발생 시 책임 배분 등에 관하여 많은 쟁점과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 들면 병동환자의 공복 채혈 시 정맥로 확보가 필요한 환자에게 정맥로 확보는 간호사가 채혈은 임상병리사가 2인1조로 아침 공복채혈을 해야 하는지 등 간호법 통과 이후 업무범위를 정하는 하위법령에서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간에 업무범위를 다룰 때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간에 중첩된 업무 중에서 상하위 개념이 성립하는지 등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향후 본격화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간호인력의 진료보조행위와 의료기사의 업무 중 의료행위상 또는 직역 상 상위체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사가 이들에게 함께 업무를 지시한 경우 업무의 부담이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의료기사의 업무 중 일부를 간호인력이 수행하도록 간호법 하위법령에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든지, 반대로 의료기사법에 간호인력의 업무를 일부 수행토록 하는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없는지, 간호인력과 의료기사의 업무 중첩영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이 보건의료직역간의 첨예한 갈등요인이 될 것입니다.

간호법의 업무범위 하위법령 입법 시 의료기사에 관한 업무범위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여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첩되어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무는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범위 수행상의 우선권에 관한 상-하위체계 등에 대한 논란을 예방하고, 합법성과 체계성을 담보한 업무행위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전제요건으로서 의료기사법에 관한 업무범위 하위법령도 병행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후속적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의료법 바깥에서 논의되고, 의료기사는 별도로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사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에 있어 의료기관 안에서 행해지던 의료행위가 지역사회 의료돌봄으로 탈 의료기관화 되어가고 있는 의료시스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의료기사법상 지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가 아닌 의료기사 직역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직역과 의료기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특성을 감안하여 직역 간 업무의 조정 내지 협업을 이루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이라는 시기적 상황에서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간의 업무영역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간호인력과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직역 간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이러한 업무조정을 위한 기구가 조속히 신설 될수 있도록 협회와 임상병리사 회원들은 함께해야 합니다.



제502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1월 9일(토) 오후 1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0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8명, 총원 45명 중 35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4년 제503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2024년 제183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안내,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지원금 관련 보고, 2024년 제7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행사 안내, 2024년 시도회, 분과학회 행정지도감사 감사자 선정 완료, 2024년도 제52회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안내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4년 협회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2024년 2기 예정 부가세 납부, 징계무효확인청구의 소 및 징계효력정지기처분 관련 비용 지급 보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59회 전국여성대회 참가비 및 후원금 지급 △학술부 2024년 7차 학술부 회의, 2025년 해외학회 발표자 모집 안내 홍보 △교육부 의거총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TFT 1차 회의, 의거총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TFT 2차 회의, 페르소나 시 답변 점검 방문, 임상병리교육평가원 1차 정기이사회 △국제부 교차트레이닝 관련 △공보부 병리협보 편집 및 발간, 병리협보 및 배너 광고 현황, 유튜브 및 SNS 관리, 보도자료 작성, 세이프타임즈 9주년 협찬 지급 집

행, 국회도서관회 운영 및 편집 용역 계약 및 비용 지급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기타사항 △정보통신부 사무국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시스템 구입의 건, 전산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업체 미팅의 건, KT비즈메카 전체 전자문서 백업 작업의 건, 9월 엠포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기획정책 평생교육원 관련 MOU 완료, 보건의료인 임상병리사 해외취업 연계 프로젝트 출장의 건 △정무부 국회정책 토론회 △섭외부 진로멘토링 촬영 △중소병의원부 중소발전위원회 실무자료 개발팀 6차 소위원회 회의, 공익신고 위원회 6차 회의,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6차 회의 △보훈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이 진행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해외학회 발표자 모집' 개정의 건, '한일교류공로자회 규정' 제정의 건,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관운영 세칙' 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개정의 건, 분과학회장 선출 기준 관련 규정 개정의 건, '홈페이지 게시판 규정' 제정의 건,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최칙' 개정의 건, '찬조금 규정' 제정의 건을 진행했다. 2호, 7호 안건은 유보, 3호, 8호 안건은 의결 후 문구 수정, 나머지는 의결됐고 기타 토의 후 제502차 상임이사회는 정상적으로 폐회했다.

2024년 16개 시도 중소병의원 대표위원 워크숍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1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신라스테이 천안에서 2024년 16개 시도 중소병의원 대표위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소병의원 회원을 위한 노무상식(신동환 ㈜HR인사노무닷컴 대표) △시도별 홍보 활동사항 공유(강종원 부산시회 대표위원, 김민주 경북도회 대표위원) △중앙회 현안보고(이광우 협회장) △직정임금 &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정책보고(최병호 사업부회장)가 주요일정으로 진행됐고 불분명 의료행위 신고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논의와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대표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중앙회 동정

- 11월 1일** 진로멘토링 사업 회의
- 11월 4-6일** 외부회계감사 중간감사
- 11월 5일** 기획정책부 회의, 정보통신부 콜봇 및 챗봇 회의
- 11월 6일** 법제위원회 회의
- 11월 9일** 제502차 상임이사회 행정지도감사 교육
- 11월 11일** 찾아가는 임상병리사 해외 취업 설명회
- 11월 12일** 기획정책부 회의
- 11월 13일** 제4차 한일교류공로자회 회의
- 11월 14일** 제2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및 분과학회장 연석회의

- 11월 15일** 차기 종합학술대회 개최지 답사 정보통신부 회의
- 11월 18일** 기획정책부 회의
- 11월 19일** 행정부 회의, 공보부 회의
- 11월 20-21일** 2026년 종합학술대회 장소 실사
- 11월 21일** 제2차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 11월 23-24일** 중소병의원 대표위원 워크숍
- 11월 27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업체 간담회
- 11월 28일** 전산연수강좌
- 11월 29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회의
- 11월 30일** 중소병의원 공단전문감사 워크숍

2025년 해외학회 발표자 모집 연장안내

1. JAMT 국제 심포지엄 주제 구연 발표자 모집

- 행사일 • 2025년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 초청기간 • 2025년 5월 9일(금) ~ 5월 11일(일) (2박 3일)
- 구연 주제 • Role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in the Era of Genomic Medicine
- 구연발표자 모집 : 2명(영어 발표)
- 포스터 발표 모집 인원 : 0명

2. 제16회 APFMLS(대한학회) 및 AAMLS(아시아 임상병리사연맹 학회)

- 행사일 • 2025년 4월 10일(목)~13일(일)
- 구연발표자 모집 • 2명(영어 발표)
- 포스터 발표 모집 인원 : 0명

* 초청기간 및 주제는 대만협회 확정 후 지원자 개별 공지 예정

3. 해외학회 주제심포지엄 지정 발표자 특전안내 학회 등록비, 항공료, 숙박비 전액 지원

4. 해외 일반 포스터 발표자 안내 포스터 발표자 30만원 지원

5. 모집 기간 및 방법: 2024. 12. 31(화)까지 이메일 접수, kamtintl@naver.com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문의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제8차 중소병의원 학술제 개최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가 10월 26일(토) 오후 2시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합니다'를 주제로 제8차 중소병의원의 학술제를 실시했다.

황문선 회장은 "중소병의원 학술제인 만큼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시는 회원에게 맞춰 강의 내용과 심전도 실습 등을 준비했으니 많은 것을 얻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서울시회 집행부와 함께 학술제를 준비해주신 중소병의원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학술제 강의는 혈액은행 업무와 문제해결(세명대학교 최광모), 5주기 검진기관평가 길라잡이(서울내과의원 안영), 사례로 본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녹십자 아이메드 강남의원 박미성),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절차 및 방법(목동힘찬병원 정욱희), 매독의 진단 및 검사와 신고 방법(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오형석)로 구성됐다. 또한, 다른 강의실에서는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심전도 검사의 개념, 실습 및 판독 등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제에는 내외빈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고, 많은 업체에서 부스 전시를 진행했다.

서울시회는 12월 5일(목) 오후 7시 1964년생 정년퇴임자 회원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마지막 보수교육을 12월 14일(토)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제2차 포상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 간담회 실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11월 12일(화) 부산시회 사무실에서 제2차 포상심의위원회를 실시했다. 또한, 13일(수) 메이리 연에서는 자문위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2024년 제2차 보수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11월 16일(토) 오후 2시 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보수교육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근거기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임상병리사의 역할(동의대학교 임용), △업무상 질병 및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사례 (동국대학교 김덕기), △헬스케어 환경의 커뮤니케이터로서 AI(하해호 평한술) △임상병리사 업무범위와 확장을 위한 방안(삼성서울병원 박종오)을 주제로 진행됐다.

문성식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변화 속에서 대구시회 회원분들이 의료헬스케어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다"며 "내년에는 대구시회뿐만 아니라 권역을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가을 산악 행사 실시



대전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권지연)가 11월 1일(토) 오전 계룡산 수통골에서 60여 명의 회원들과 힐링 산악 행사를 가졌다. 수통골은 도심과 가까우며 아름다운 계곡과 산이 펼쳐지는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골 지구의 대표 탐방코스다. 대전시회는 가을 행사의 일환으로 체육대회와 산행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해마다 준비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열렬한 참여로 매년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다. 대전시회는 행사를 준비한 집행부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가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2024년 제3차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윤명재)가 11월 2일(토)부터 3일(일)까지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2024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강원도회는 이사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회 회칙 개정에 대한 상정 논의 건과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회 보수교육 예산 책정 심의 건을 다뤘고 이후 진행된 임원 워크숍에서는 중앙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24년도 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2024년 제2차 보수교육 실시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는 11월 2일(토) 전남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덕재홀 1층 강당에서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서정훈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보수교육은 현장검사 이해와 실제(전남대학교병원 서정훈), 검사실 감염예방과 안전관리(대구보훈병원 이재숙), 신장 기능과 변형적혈구(광주기독병원 기원진), 임상병리사 업무범위와 확장을 위한 방안(삼성서울병원 박종오)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서정훈 회장의 교육 주제인 '현장검사 이해와 실제'는 최근 화두인 지역사회 의료돌봄 사업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로 대두되고 있는 POCT와 관련된 내용이다.

서정훈 회장은 "황금 같은 토요일에 보수교육을 들으러 오신 광주시회 회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말하며 "광주시회 모든 임원진은 회원들이 기대하고 알차고 도움이 되는 가고 싶은 보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 New Taipei & Gwangju Inter-City MedTech Symposium 참석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는 10월 17일(목)부터 20일(일)까지 Taipei Medical University-Shuang Ho 병원에서 열린 2024 New Taipei & Gwangju Inter-City MedTech Symposium에 참석했다.

'Knowledge Synergies, Boundless Innovations'라는 주제의 이번 심포지움에는 양시도회 간 MOU 및 학술발표회를 위해 대표단 9명, 일반회원 1명, 발표자 2명 총 12명이 참석했다. 광주시회에서는 MOU 10주년을 맞이해 명성황후 어보에 '양시도회 간 영원한 우정'의 뜻을 기원하는 문구를 아로새겨 뉴타이페이시회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일정에서는 Taipei Tzu Chi 병원, MacKay Memorial 병원 그리고 Taipei Medical University-Shuang Ho 병원을 방문해 선진 TLA(자동화검사실)을 견학했고 학술발표자 2명(전남대학교병원 차민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정수아) 모두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5년도 울산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양시도회 간 자매

결연 진행을 합의했다고 광주시회는 설명했다.

서정훈 회장은 "언제나 교류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따뜻한 환영과 모든 것 하나하나 세심한 감동을 선사해주는 양시도회 모든 임원진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5년도 울산 종합 학술대회 때 맞이 준비 잘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2024년 제3차 보수교육 및 학생포럼 개최



경기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가 10월 26일(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제3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경기도회는 보수교육과 함께 시도회로서는 처음으로 학생포럼을 개최해 도내 4개 대학 6

팀이 참가했다. 경기도회는 학교를 대표하는 각 팀 학생들이 경쟁하듯 뛰어난 주제로 열린 학구열을 발산해 좋은 평가를 받아 학술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회 봉사회 다빈은 아름다운 가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기부와 나눔을 실천했다.

경기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가 10월 26일(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제3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경기도회는 보수교육과 함께 시도회로서는 처음으로 학생포럼을 개최해 도내 4개 대학 6

경기도회-광주시회 집행부 워크숍 개최



11월 16일(토) 무등산 편백 자연 휴양림에서 경기도회와 광주시회의 집행부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의 성과와 사업을 공유하고 회원 복지 증진과 협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경기도회 유광철 회장과 광주시회 서정훈 회장을 비롯한 양회 집행부가 참석했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협회장도 경기도회 명예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회 김대중 자문위원, 임경철 감사도 자리를 빛냈다.

앞으로도 경기도회와 광주시회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2024년 제2차 보수교육 실시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이상훈)가 11월 16일(토) 해전대학교 간호학술관 3층에서 2024년 충청남도회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보수교

육은 △요검사 이해와 실무 △심장초음파검사의 이해(원리) △감염관리 실무 △건강검진 길라잡이를 주제로 진행됐고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전산연수강좌, 협회 제휴카드 혜택 안내도 이뤄졌다.

한편, 충남도회는 2025년 1월 18일(토) 오전 11시 2025년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이다.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임상병리사 홍보 위해 진로멘토링 및 구미시장과의 조찬 실시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지난 9월 24일(화)과 10월 2일(수) 경북 도내 대학인 대구한의대학교, 대경대학교, 경운대학교, 김천대학교 졸업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멘토링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및 경북도회 소개, 각 파트 실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 임상병리사로서 역할 및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경북도회는 실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경북도회는 도회 홍보 활동 및 임상병리사 업권 수호를 위해 구미에서 주최 하는 소통 프로그램인 '아침은 먹고 다니세요(아먹다)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제로 출근 전 구미시장과 조찬을 함께하며 유연하게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김창호 구미시장과 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경북도회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현실과 개선, 현장검사(POCT)에 임상병리사 파견 등을 제안하며 임상병리사를 알리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24년 제2차 보수교육 실시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는 10월 19일(토) 오후 3시 안동병원 컨벤션홀에서 2024년 제2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보수교육은 혈액형 판독 불일치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사례별 증례, 돌봄의료와 방문검사(POCT),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 확장을 위한 방안, 분자진단의 최신경향과 중소병의원 적용가능 항목을 주제로 진행했다. 경북도회는 학술적 내용 이해도 증대와 업무범위 이해, POCT 및 분자진단의 최신 경향을 주제로 특히 중소병의원 회원들에게 유익한 강의로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2024년 제4차 정기이사회 및 분회장 연석회의 실시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는 11월 9일(토) 오후 3시 영천한의마을에서 2024년 제4차 정기이사회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이사진, 분회장들과 분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이사회로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2025년 사업(안), 2025년 예산(안), 포상규정 개정(안), 도회발전기금 운용(안), 기타 안건으로 2025년 중앙회 대의원 총회 선출직 대의원 선정(안)이 채택돼 심의가 진행됐다.



구미시민마라톤대회에서 현장검사 홍보부스 운영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는 10월 27일(일) 오전 10시 구미낙동강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개회 기념 구미시민마라톤대회'에서 현장검사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마라톤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장 질환 검사 중 하나인 트로포닌(Troponin) 검사를 제공했다. 검사에 참여한 143명의 대상자 중 요관찰자 2명을 확인해 검사 부스에 상주하던 전문의와 상담 후 귀가조치 시켰으며 추후 병원 진료를 권고했다. 또한, 경북도회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자가키트를 제공하며 진단검사 전문가 임상병리사의 업권을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최근 현장진단검사(POCT) 체외진단기기의 발달로 스포츠 행사 현장에서 진단검사 전문인력인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제주한라대학교 축제 참가해 무료검진센터 부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정무상)가 11월 7일(목) 오후 1시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임상병리사와 함께하는 무료검진센터' 부스를 운영했다. 제주도회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알리고 후배 양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제주도회는 "채혈, 일반혈액, 임상화학, 폐기능 검사 등 업무 지원을 통해 무료검진센터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며 "앞으로도 회원 및 선후배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정기이사회 및 2024년 워크숍 실시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회장 박진영)가 9월 21일(토) 오후 3시 제3차 정기이사회 및 2024년 워크숍을 실시했다. 주 안건으로 제2차 보수교육 건과 유관기관 간담회 보고, 종합학술대회 경과보고, 경남도회 규정집 개정 회의, 포상위원회 및 내부감사 일정 및 회의, 채혈 실무교육, 2025년 예산안 준비가 진행됐다. 경남도회는 이사회와 더불어 1박2일 워크숍으로 32대 집행부 임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경남도회 발전을 위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예비 임상병리사 위한 채혈 실무교육 실시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가 9월 28일(토) 김해대학교 창의관 5층에서 예비 임상병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채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채혈이론 강의는 박경훈 학술부회장(마산의료원)이 진행했고, 실기교육은 장소 세 곳에서 채혈 보조강사의 지도하에 이뤄졌다. 인제대학교, 김해대학교, 마산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학생 80여 명이 채혈 실무교육을 수강했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Vein Viewer를 직접 시연하면서 진행됐고, 교육 종료 후에는 수료식이 진행됐다.

경남도회는 김해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산업계 전문가 초청 교내 실무교육을 주관하여 경상남도회가 채혈 실무교육을 3년 연속 이어오고 있다.

2024년 제2차 보수교육 실시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가 10월 26일(토)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제2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검사실 안전 관리(아산 총무병원 김미진), 어지러움 검사(부산대학교병원 조봉구), 혈액형 불일치 해결 및 수혈관리실 경험(삼성창원병원 김현주), POCT의 최근 동향과 정도관리(DIC WATER 이해순) 등의 연제로 이뤄졌다. 보수교육에 앞서 진행된 경남 권역 내 대학 학생포럼에서는 김해대학교 학생이 최우수상 표창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박진영 회장은 앞으로 춘·추계 보수교육 외 분회별 간담회를 통해 20인 이상의 보수교육 시행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회원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공감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학회장 이승모)가 11월 9일(토)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2024년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상화학검사에서의 검체 활용도 최적화 및 정도관리 최신동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정도관리의 역사와 발전을 돌아보며 미래 지향적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특강으로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구연 발표에서는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 발전 사례를 공유하며 임상화학 분야의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가 임상 검사 품질 향상과 관련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문적·실무적 성과를 도출한 자리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앞으로도 정도관리와 임상화학 검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회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전국평의원회의 개최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학회장 이현아)는 11월 9일(토)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전국평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현아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검사실에서의 품질관리와 표준화의 필요성에 따라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NCCLS) guideline을 기반으로 학술적 문제 해결과 인증심사규정을 연결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사이버 온라인에서는 기초적 혈액학을 주제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임상혈액검사학회의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혈액학을 주제로 한 학생포럼이 실시됐다. 총 6개 대학의 교수 6명 및 학생 26명이 초록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특강 및 구연발표 시간을 통해서는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동대학교 임용 교수), 1차 지혈과 기기 원리(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김윤석 교수), CBC 이상결과 보고관리(고대안산병원 이혜린), 일반 혈액검사의 질 향상 활동 사례(서울대학교병원 이현), 문서번호를 통한 질 관리(신화소프트웨어 문지숙)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전국평의원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가 11월 16일(토) 제3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연은 △CLSI M100 ED34 주요 변경 사항(비오메리 박신영) △Syndromic Testing for Respiratory Infection: Clinical Impacts and Laboratory Considerations(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태열) △Vancomycin variable Enterococcus faecium isolated from clinical samples(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하성일) △검체 판독 기준(서울대학교병원 홍성우) △미생물검사 24시간 운영(삼성서울병원 이준기) △코로나 전, 후 호흡기 미생물과 항생제 감수성의 변화양상(단국대학교병원 김재수)이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공로상 조형관(前이대목동병원) △감사패 신혜지(연세세브란스병원), 이용희(경희대병원), 김상우(경희대병원), 주식회사 쉐타 매트릭스 △학술상 황인원(공주의료원), 박창은(남서울대학교) △학술장려상 신상현(은평성모병원) △특별공로상 김혜영(신성대학교) △특별상 박소현(동남보건대학교) △포스터상 김근대(은평성모병원)이 수여됐다.

황유연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임상미생물학 분야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와 학문적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조직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2024년 1차 보수교육 실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학회장 소전기) 조직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위원장 송광현)가 10월 12일(토) 서울아산병원에서 조직전문임상병리사 1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영수 교수가 'Gastric Cancer에서의 Proper Biomarker 및 그 검사의 중요성'을 주제로 다뤘고 두 번째 세션에서 고재문 교수는

'폐 병리의 이해'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1차 보수교육에는 총 59명의 조직전문임상병리사 회원이 참석했고 강의에 앞서 11기 조직전문임상병리사 자격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삼성서울병원 김영식 회원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편, 2024년 2차 조직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보수교육은 오는 12월 7(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4평점이 부여된다.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2024년 보수교육 실시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위원장 지우현)가 10월 12일(토) 서울아산병원에서 육안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보수교육은 각각 간담체 육안병리의 이해(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지승윤 교수), 내분비계 육안병리의 이해(서울아산병원 송동은 교수)를 주제로 시행됐으며 약 70명의 수강 희망자들이 모여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인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상세한 교육이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육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강의이지만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이동 동선이 길어 힘이 든다'는 의견, '한 번만 보기에는 아까운 교육이라 추후에는 녹화까지 병행하여 복습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하였기에 사후 설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쇄도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 부분으로 '강사진이 준비한 자료가 풍부하며 자세한 설명 덕분에 이해가 빨랐다'는 의견과 '간담체 검체가 자주 오지 않아 경험적

한편,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성황리에 마친 보수교육에 이어, 업무 현장에 있는 육안전문임상병리사 회원들의 끊임없는 직무 역량 발전을 꾀하기 위해 금년 11월 심화교육 강좌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학회장 김상훈)가 9월 21일(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및 본관에서 2024년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특수감각계, INM 간담회와 더불어 학생포럼을 진행했다.

삼성병원, 조민철(아산병원), 이예진(세브란스병원), 강다연(서울대병원) △특수감각계 발표 및 시연 조혜진(삼성병원), 김진영(중앙대병원), 주혜린(실로암안과병원), 연재진(서울대병원), 김자원(백병원)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발표 및 시연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순환계 발표 및 시연 최윤선(고려대병원), 진선민(서울대병원), 김가현(서울대병원), 김경채(삼성병원), 전병원(고려대병원), 김설화(삼성병원) △신경계 발표 및 시연 장민환(삼성병원), 박현민(서울대병원), 이정현(고려대병원), 박진우(삼성병원), 한민호(세브란스병원), 강경화(부산대병원) △호흡계 발표 및 시연 박지현(

학회는 "이번에 학술대회에서 진행한 학생포럼을 통해 현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또한 중소병원에 종사하며 임상생리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는 회원들도 다양한 정보와 검사의 트렌드를 알아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및 평의원대회 개최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학회장 이창경)가 11월 9일(토) 오후 1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평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최신 검사정보의 중요성과 활용'으로, 의료검사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개최식에서는 이창경 학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김대은 전임 학회장에 감사패 수여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우수검사실 인증을 위한 검사실 운영(울산동강병원 김승용 교수) △채혈실의 검사 전단계 품질 지표 관리와 안전(서울성모병원 장현식 교수) △의료기관에서의 친철 Skill-Up 교육(분당제생병원 박성필 교수) △차세대 항체 치료

제 개발에 대한 현재와 미래(경북대학교 김다은 교수) 등을 주제로 진단검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가해 최신 연구와 실제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 학회는 특히, 전 노을 주식회사의 우보미 연구원이 '진단검사 분야에서의 AI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AI 기술이 진단검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회원들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이 돼 참석자들이 최신 검사 정보를 학습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학회장 이건동)가 10월 26일(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ISCN 2024 Update: International Nomenclature for Genomics'를 주제로 한 서울성모병원 김명신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혈액 종양의 분자검사(양혜경) △액체생검을 이용한 비유전성 NGS 패널 도입 사례(문영현) △자궁내막암에서의 MSI 적용(유정민) △Molecular Laboratory Design(최석진) △Bioinformatics analysis for NGS data(양동민) △한국유전자 검사평가원 숙련도평가 체계(민혜원) △APC 유전자의 병원성 돌연변이 분류 및 양성률 통계(정은철) △Process Improvement of Cytomegalovirus Drug Resistance Mutation Testing(김소연) △Evaluation of Real-Time PCR assays for



Detection of Bordetella pertussis for Clinical Diagnosis(지수현)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또한,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학과 랩 투어와 학생포럼을 실시했다. 우수포스터로 호서대학교 유주랑, 김민주, 김정연 학생과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지은 학생이 선정돼 발표를 진행했고 호서대학교 황다현 교수가 지도하는 김정연 학생이 제출한 포스터가 최우수 포스터로 선정됐다. 학회는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안미숙, 배해정, 이상규, 홍준영 회원에 대한 학술공로상 시상을 끝으로 성황리에 추계학술대회를 마쳤다. 이건동 학회장 및 임원들은 "지속적인 학술 성장과 검사 술기에 도움이 되는 임상유전검사학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학술상

건국대병원 박상구 회원, 학술상 수상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박상구 회원이 작성한 논문이 제11회 대한수술중신경감시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및 워크숍에서 최우수 연제로 선정되어 학술상을 수상했다. 'Enhancing surgical precision: a novel electromyography finding for confident identification of the root exit zone during microvascular decompression surgery'라는 주제의 논문은 편측성 안면경련(hemifacial spasm, HFS)환자가 미세혈관 감압술(microvascular decompression, MVD)이라는 수술 중 안면신경이 뇌간(brainstem)에서 분지되어 나올 때 중추신경(central myelin)과 말초신경(peripheral myelin)을 육안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다. 안면신경 주변에 있는 동맥혈관이 중추안면신경 주변(root exit zone, REZ)에 영향을 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는 Schwann cell myelin이 부족해 외부적인 영향에 취약하여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이러한 부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REZ에서만 독특한 근전도 파형이 관찰되는 것을 박상구 회원이 발견했

고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Sang Ku Sign (SKS)'라고 명명했다. SKS의 발견으로 편측성 안면경련 환자에서 미세혈관감압술을 할 때 수술 부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술이 잘 되었는지 여부도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 한편, 박상구 회원은 대한신경외과학회 내 대한수술중신경감시연구회(Korean Society of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에서 출간한 '수술중 신경감시(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교과서에 저자로 참여했다. 박상구 회원은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박관 교수와 총론부분 chapter 8 '수술중 신경모니터링에서 잡파 및 잘못된 결과 해결 방법(Control of noise and false results during intraoperative monitoring)'에 공동 저자로 참여해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간섭영향과 해결방법 그리고 뇌종양 수술과 척추수술에서 운동유발전위 검사의 올바른 검사방법에 대하여 38장의 사진을 첨부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CASSETTE MATE



- COMPACT SIZE**
 콤팩트한 사이즈로 인해 공간 확보가 용이합니다.
 ▶ 무게 : 12.5 Kg (hopper 500 g) ▶ 필요동력 : AC 85~264v / 5V, 50/60 Hz
 ▶ 크기 : 190*305*330 mm (호퍼 포함 높이 460 mm)
- REDUCE OPERATIONAL COST**
 레이저 마킹 기술을 사용하여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인쇄속도 : 1개 4.5초 (50개 기준 QR코드 포함 글자 15자 - 4분내외)
 ▶ 최대 수량 : 50 cassette ▶ 레이저 파워 : 3 W
- EASY TO USE**
 작동법이 단순하여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 LOW WORK NOISE**
 소음(<65dB)이 적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주)현일랩에이트 **HYUNIL**
 전화 1577-6255 | 팩스 02-332-1974
 이메일 tax@hyunil-lab.com
 홈페이지 www.hyunil-lab.com




HYUNIL LAB MATE 채용공고 CASSETTE MATE 홍보영상

2024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 | |
|---|---|
| <p>1) 접수기한 : 2024년 12월 25일(수) 23:59까지 전송</p> <p>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p> | <p>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p> |
|---|---|

[제502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 의원 임상병리사들의 목소리는 방치해도 됩니까?

● 광민정(정회원)/면허번호 : 21846

임금 지불 능력에 해당하는 병원의 수익구조에서 보면 지불 능력의 여력은 매년 6%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건의료노조의 임금실태조사에서 분석되었다는 11월 병리협보 기사를 보고 인상 깊었습니다. 의원급 검사실에 근무하는 저는 매해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는데 2.5% 인상했습니다. 병리협보 기사를 근로계약서 작성 전 읽었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임금협상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11월 협회지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법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깨우침을 배웠습니다. 내년 근로계약서 갱신 시 도움이 될 듯해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 의원 임상병리사들의 목소리는 방치해도 됩니까?

● 홍효림(정회원)/면허번호 : 44114

전체 의료기관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병원, 의원 임상병리사들의 열악한 환경과 임금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고, 협회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임상병리사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수면패치 개발...현장에 교수를 만나다

● 김중임(정회원)/면허번호 : 33688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현대인들이 수면의 양과 질에 문제를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작용이 최소화된 수면 패치를 교수님께서 개발하셨다고 해서 Interview 기사에 눈길이 갔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 임상병리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 평가하심에 자부심이 생겨 오늘도 일터에서 으쌰으쌰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었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임상병리사에 대한 인식제고가 더 높아지길 저 또한 너무나 바라는 바입니다.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속도가 늘 아쉬운 부분이기엔 협회와 회원들의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2024 바다런' 행사에서 심장 검사 지원

● 이영희(정회원)/면허번호 : 16685

늘 체육대회 같은 공식행사에서 보통 지원의료인력들은 의사, 간호사 위주로 했는데 트리폰 검사 현장에서도 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임명인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경북 영천지부 마라톤대회에서도 트리폰 검사 현장에서도 실시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감사합니다.

FUND RAISING

협회 발전 기금 모금

존경하는 7만 8천 회원 여러분,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협회와 신축 협회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회 발전 기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48437-04-007038
(예금주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입금명 : 면허번호+성명,
기관일 경우는 기관명으로 기재



회원 동정

원진 녹색병원 박민희 회원
11월 1일(금) 원무과장 발령



TALK

앞으로 병리협보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INNOVANCE PFA-200 System

혈소판 기능 검사 장비

siemens-healthineers.com/kr/hemostasis



EPI Cartridge

- 혈소판 복합 기능 검사

ADP Ccartridge

- 혈소판 복합 기능 검사
- Aspirin 혈소판 약물 반응 검사

P2Y cartridge

- P2Y12-receptor antagonist
- 혈소판 약물 반응 검사

INNOVANCE® PFA-200 System (Platelet Function Analyzer)

수술 전 혈소판 기능 스크리닝 및 약물반응 검사 결과 제공

- 폰 빌레브란트(VWF) 및 1차 지혈 관련 혈소판 기능 부전 검출
-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등 항혈소판제제 모니터링
-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 및 치료 효과 최적화 가능

Siemens Healthineers Ltd.
지멘스 헬시니어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더에셋빌딩 10층
우)06620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재)씨젠의료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검사 역량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등에서 검사센터와 클리닉 및 검진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질병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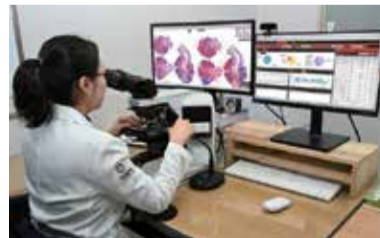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운영



국내 최대 분자진단 검사 역량 보유



인공지능(AI) 등 최첨기술 도입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서비스 제공